

「우상을 파괴하는 돌」을 향해

깨는(?) 출판을 지향하며

뜨인돌 출판사 이름은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인 '우상을 파괴하는 돌'이 원뜻이다. 단지 기독교적인 의미로만 쓰였을 리 만무하다. 고정관념으로서의 우상을 깨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학을 전공하던 대학 때부터 출판에 관심이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고영은 대표가 출판계에 뛰어들게 된 것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과 무관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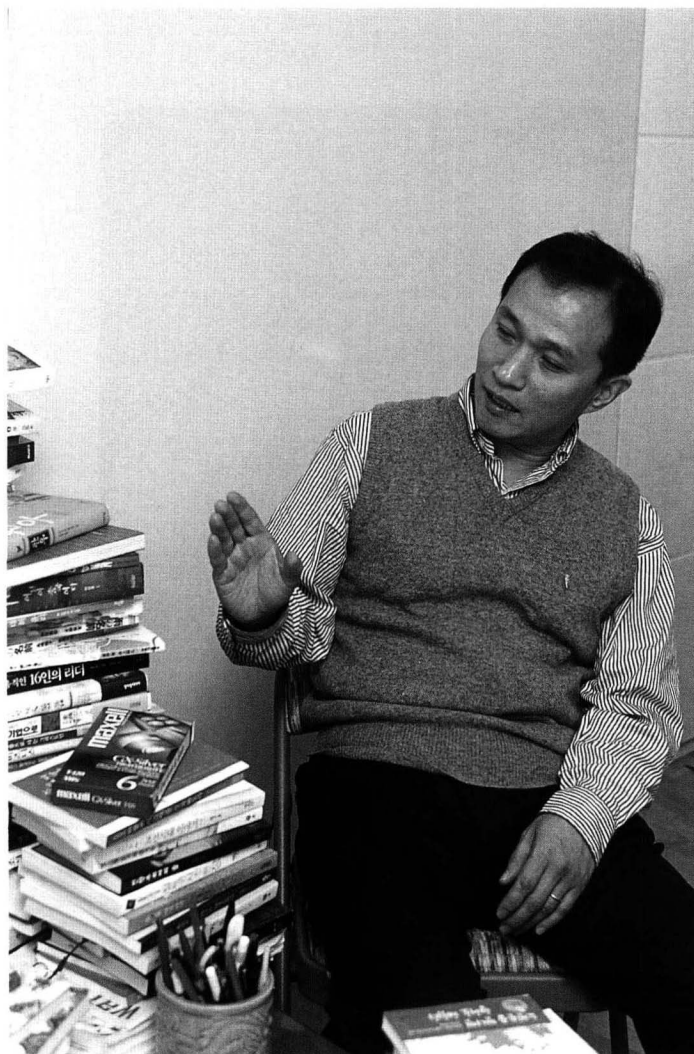
“처음엔 기독교 어린이 출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출판업을 잘 모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둘째치고 초창기엔 필자를 잡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로 제가 직접 쓴 책도 있어요. 《아버지자리 찾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서적의 시장이 작은 것도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일반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현재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내놓게 되었다. 현재 뜨인돌의 책들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후 꾸준히 사랑받는 책들을 내놓았다. “1997년에 나온 《흑설공주 이야기》가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문장을 손봐서 개정판을 냈죠. 운 좋게도 모 신문 독후감 대상도서 선정되어서 독자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유머를 가진 리더가 성공할 수 있다는 독특한 경영논리를 내세운 《웃기는 리더가 성공한다》는 책도 경제·경영 부문에서 3개월 정도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뜨인돌의 책들 중 최고 효자는 노빈슨 시리즈다. 최근 출간된 《노빈슨의 남극 어드벤처》까지 현재 11권째 이어지고 있다. 국내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 “중국에는 노빈슨 시리즈가 이미 나왔어요. 미국은 지금 만들어놓은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영문판으로 접촉 중이구요.” 이 정도면 머지 않아 세계를 누비는 노빈슨을 볼 수 있을 터.

노빈슨 시리즈가 처음 기획된 것은 고영은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 무인도에서 과학의 원리로 살아남는다는 <과학동아> 특집 기사를 읽다가 착안을 했죠. 그 당시 <과학동아> 편집장이 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 감수를 부탁하고, 필자 선정하고, 삽화 넣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이다. 모든 시리즈를 합쳐 현재까지 약 70만 부가 팔렸다. 이만하면 대형 베스트셀러이다. 최근에는 11번째 《노빈





“재미있고 쉽고… 독자를 즐겁게 하는 책이 아니라면, 삶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책을…”이라는 몽테뉴의 잠언이 바로 뜨인돌 출판사의 모토이다.

손의 남극 어드벤처》가 출간되었다. 경쾌하고 유티 넘치는 글과 삽화로 과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독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였다.

하지만 ‘노빈손 시리즈’의 성공이 한계와 부담을 지워 주진 않았을지. 다음 책에 대한 기대로 어깨가 무거울 법하다. “저희는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다음 번에는 어떤 책으로 깜짝 놀라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역시 뜨인돌답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노빈손 시리즈를 비롯하여 뜨인돌이 내는 책들은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일정한 시리즈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후설공주 이야기》《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바다마녀를 사랑한 남자》 등이 페미니즘 동화라는 비슷한 줄기로 출간되었다. 또 《인듀어런스》로 잘 알려진 탐험가 새클턴 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다.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책을

그는 출판이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본다. “왜냐면 한 시대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틀에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작업인 것이죠. 또 다양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방송과 신문매체가 책읽는 문화에 많은 시간과 지면

을 배정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출판계는 질적, 양적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제 출판도 다른 산업처럼 본격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미국 출판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부는 출판사마다 자기 색깔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가에서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뜨인돌은 자신이 있다.

곧 출간될 책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에 ‘재미있는 책’

이라는 말이 연이어 나온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지식으로 느끼는 재미이다. “《캡틴 쿡의 항로를 따라서》가 나옵니다. 캡틴 쿡 선장이 갔던 실제 항로를 따라서 쓴 책이에요. 그 지방의 문화도 살피고 생생한 탐험 얘기 등이 재미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상위 100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이 밖에 독서광들에 관한 번역서도 준비중이다.

앞으로 주력하고 싶은 분야는 세 가지다. “노빈손 시리즈 같은 에듀테인먼트 분야와 새클턴 시리즈는 계속해나





유행이나 시류에 영합한 책은 애초에 기획하질 않는다. 때문에 쓰인들이 낸 책에서는 규정되지 않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쓰인들만의 향기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고영은 대표이다.

같 생각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요즘 들어 관심을 가지는 건데 자연이나 생태 쪽 책을 낼 계획입니다.”

그는 새클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멋진 사람인 거 같아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새클턴 같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비스킷이라는 게 자기 생명을 구하는 양식일 텐데 그걸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더군요. 보통 사람 같아

선 그럴 수 없죠.” 새클턴의 모습에서 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아닐까. 고 대표는 손사래를 치지만 그것은 곧 그의 경영 마인드로 이어진다.

새클턴처럼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고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생각을 키워주고 그 안에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획력이 자라나게 해준다. 쓰인들 식구들은 고 대표까지 10명으로 출판사로서는 적지도 많지도 않다. “적정 수준이죠. 너나없이 자신의 업무를 넘어서 좋은 책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들을 내주니까 굳이 편집부, 영업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력은 팀웍에

서 나온다. 혹자는 쓰인들 사무실에 오면 시트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한다. 회의를 하면 웃느라 회의진행이 잘 안될 정도이다. 화목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발상들은 사방에서 돌출한다.

‘노빈손 시리즈’의 성공으로 이제 출판계에서 쓰인들의 존재는 더욱 비중 있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자회사 개념으로 인문학전문 출판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앞으로 독자들에게 향기가 오래 가는 책, 재미있고 유익한 책, 그리고 늘 삶과 가까이에 있는 책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고영은 대표는 재미있는 책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출판한다. 만드는 이가 그랬다면 읽는 이 역시 그 즐거움과 따뜻함을 읽어내기 마련이다. 그의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고영은 대표와 쓰인들 편집진이 깨버려야 할 우상은 아직도 자갈밭의 돌처럼 많을 것이다. ✎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